광주서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축 논의

내달 4일 DJ센터서 G20재무차관 회의

금융규제·IMF역할·개도국 지원 조율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려질 주요 의제를 본격 조율하는 첫 고위 실무자 회의가 내달 4일 광주에서 막을 올린다.

특히 한국이 선진국을 설득해 의제로 포함시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논의도 예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주요 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가 오는 9월 4일부터 5일까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집결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의 고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실무회의 주요 의제는 = 이번에 논의될 의제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현안인 금융 규제·개발 이슈 등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진척하는 논의도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9월 4일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체화 점검, 은행세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포함한 금융·자본 규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에너지 보조금 등에 대한 분과별 일정을 구체화한다.

특히 누트 웰링크 BSBC 의장은 이번 회의 기간에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은행자본·유동성 기준에 대한 특별 연설을 하기로 해,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보다 강화된 국제기준이 나올 전망이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윤곽 나오나 =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선진국들을 설득해 G20의 주요 의제로 관철시킨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Global Financial Safety Net)과 기존 체제에서는 구제금융이 필요한 국가가 IMF에 요청하는 것이지만 위기전염 방지장치는 IMF가 유동성 위험이 있어 보이는 국가들에게 신용공여(credit line) 설정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즉, IMF의 역할이 '소방수'에서 '예방주사'로 바뀌는 것으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처럼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났듯이 위기가 동시에 여러 국가의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키는 것에 대비하고자 글로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IMF의 유동성 지원을 받으면 국제사회에서 구제금융국으로 낙인 찍히는 문제가 생긴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위기전염 방지장치와 기존 지원체제 간 다른 점의 하나는 요청 주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형 아반떼' 첫 인도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23일 서울 계동사옥에서 '신형 아반떼 첫 인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현대차는 이날 전국 841개 거점별로 같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현금자산 1조8850억

상장사 4위 … 광주·전남 13개 법인 33% 증가

광주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현금성 자산규모 4위에 올랐다. 광주·전남 상장사(유가증권시장)의 현금성 자산도 3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3개사의 현금성자산(6월기준)은 총 5021억원으로 지난해 말(3748억원)보다 1273억원(33.96%)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이란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합한 것을 말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061억원으로 지난해 말(1709억원)보다 79.14% 증가했고 단기금융상품은 1960억원으로 지난해 말(2039억원)보다 3.90% 감소했다.

현금성자산 보유금액 상위 5개사는 광주신세계(1595억4600만원), 금호산업(1569억8800만원), 금호타이어(686억600만원), KPX화인케미칼(478억9400만원), 화천기공(161억9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아차(1조8850억원)는 전국 상장사 가운데 현금성 자산액 4위에 올랐다.

현금성자산 증가액 상위 5개사는 금호산업(+943억1600만원), 금호타이어(556억5500만원), 광주신세계(185억5300만원), 보해양조(75억2100만원), 화천기공(10억7100만원) 등의 순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 '집단교섭권' 첫 인정할듯

中企 뭉쳐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 요구 가능

정부는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기업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회·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교섭권'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는 대기업이 개별 중소기업(하청업체)의 납품 단가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 협의·합의 절차 없이 즉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도록 해 사실상 사업자단체와 당국이 단가를 (강제)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9월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업양극화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자동차, 전자 부문에서 (다른 부문에 비해)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특정 업종을 지목,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3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회 또는 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단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면서 "다만 집단교섭이 중소기업들의 담합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납품단가협의제' 등을 통해 각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개별교섭만 벌일 수 있었을 뿐 집단교섭은 인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기업 신용위험평가 발표때

구조조정 업체도 공개 추진

채권은행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용위험평가 발표 때 구조조정 업체 명단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신용위험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FT)를 설치했다.

우선 TF는 신용위험평가 발표시 구조조정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명을 처음부터 공개하는 방향으로 워크아웃 협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企銀, 中企 추석자금 1조원 푼다

기업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9월말까지 1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원자재 결제자금과 임직원 임금, 상여금 지급 등의 운전자금 용도로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에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점 심사만으로 담보나 보증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매출채권을 할인받는 중소기업은 영업점장 금리 감면에 추가로 0.5%포인트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767.71 (-7.83)
▼ 코스닥지수	477.14 (-3.24)
▲ 금리 (국고채 3년)	3.62% (+0.01)
▼ 원·달러 환율	1,181.90원 (-1.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훈